

여교사 성폭행범들, 파기환송심 중형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15~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와 이모(36)씨·박모(5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5년·12년·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때보다 각각 5년·4년·3년의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를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환송 후 당시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단,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선고 뒤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선처해 주길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박씨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행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6일 김씨와 이씨, 박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준강간미수 등의 범행과 관련해 공모·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 공모공동정범과 합동범의 성립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와 박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신빙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피해자 관사에 들어가 범행을 한 일련의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가 취해 있었고 박씨 등이 관사에 데려다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박씨로부터 이씨의 범행을 저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가게 됐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김씨의 행동은 자신의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박씨의 주거침입죄도 유죄 취지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관사에

광주고법, 각각 15년·12년·10년 선고 40시간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 명령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박씨는 그 안에 들어가기 전 동의를 받으려 한 사실도 없었다"며 "주거권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와 합동관계를 인정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단,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단독범행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7년으로 감형했다.

주춘정 기자



강추위 철통방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다시 찾아온 강추위에 철통방어를 하고 걸어가고 있다.

‘서울 여관 방화 참변’ 장흥 세 모녀 영면

서울 여행 도중 종로구의 한 여관에서 방화 사건으로 숨진 장흥의 세 모녀가 영면했다.

29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흥읍 모 장례식장에서 A(35·여)씨와 조·중생 두 딸(15·12세)의 발인식이 치러졌다.

세 모녀의 가족들은 피불이를 잃은 슬픔에 토티했다. A씨의 남편 B(40)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딸의 친구들과 이웃들도 세 모녀가 장지로 떠나기 전 가족들을 위로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세 모녀는 여행을 함께 하지 못한 B씨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숙박비가 싼 여관에 집을 풀었다가 참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A씨와 두 딸은 지난 15일 장흥의 집을 떠났다. 개학을 앞두고 "서울을 구경하고 싶다"던 막내 딸을 위

해 여행길에 나섰다. 세 모녀는 지역과 수도권을 거쳐 19일 서울에 도착했다. 같은 날 오후 숙박비가 1만5000원~2만원인 종로구 한 여관에 묵었다.

20일 오전 3시께 여관 주인과 만취한 손님 유모(53·구속)씨 간 감정 싸움이 방화로 번졌다.

유씨는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 모녀가 자던 객실 바로 앞에 불을 질렀다. 세 모녀는 화마를 피할 새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

세 모녀의 가정 형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 거주하다 8년 전 B씨의 고향인 장흥으로와 가정을 꾸렸다.

A씨와 B씨는 결혼식도 미처 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B씨가 당한 교통사고로 생활비 긴급 지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전봇대 올라가 전선 24차례 짚둑 50대 구속

보성경찰서는 29일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께 보성군 노동면 한 마을 전봇대에서 전선 360m를 절단기로 잘라 가져가는 등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성·나주·곡성·장성·담양·함평 일대에서 24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선(중성선)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중성선이 보조 전선으로 이용돼 한 방향만 건드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아간시간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농가와 과수원에 사용되는 전선을 주로 훔쳐 고물상 등지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보성=안구일 기자

아파트 출입문 번호 엿본 뒤 도둑질 40대 구속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엿보고 난 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순천경찰서는 29일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11일부터 11월8일까지 순천시 한 아파트 고층세대 3곳에 침입해 983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자신이 거주했던 아파트 계단 위에서 집 주인들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엿본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아파트의 계단과 출입문이 비교적 가깝다는 점을 노렸으며, 주로 출근시간에 엘리베이터 소리를 듣고 내려와 문 번호키를 유심기 엿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후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노크한 뒤 외출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김승호 기자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전 간부 취업사기 고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 전직 간부가 취업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 전 간부 A씨가 수억 원대의 취업 사기를 벌였다는 2건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사기 피해 금액은 1인당 1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간부직 임기가 만료된 A씨는 이후 회사를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피해금액이 20억~3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행경비 마련’ 20대 외국인 택시강도 검거

무안경찰서는 29일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도미니카공화국인 A(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35분께 무안군 무안을 한 병원 앞 정차 중인 택시에서 기사 B(51)씨를 흉기로 위협, 2만8000원이 든 동전주머니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이기성 기자

오토바이 몰던 70대 응벽 들이받아 숨져

영암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70대가 응벽을 들이받아 숨졌다.

29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시께 영암군 덕진면 한 농로에서 A(79·여)씨가 몰던 80cc 오토바이가 농수로 오른쪽에 설치된 응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영암=조대호 기자

